

〈토론〉

“서양지도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과 그 명칭에 관한 연구” 토론문

오 상 학*

먼저 박대헌 관장님께서 다양한 서양지도와 문헌의 검토를 통해 제주의 모습과 지명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지도를 전공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내부의 모습에만 도취해 있었던 게 아니었는가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우리가 아닌 타자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했을까의 문제는 비단 세계화 시대라는 시의성을 떠나 시·공간을 초월한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가 타자를 인식하는 것만큼 그들이 우리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발표는 제주도의 역사적 위상과 정체성의 파악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발표문에 수록된 방대한 양의 서양지도와 서적을 거의 접하지 못한 저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느낌과 평소 지녔던 의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통상 지도는 지리적 실재를 그린 것으로 인식되는데, 어디에 무엇이 있고, 대륙과 국가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느 지역에 어떤 지명이 있는가 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화같은 예술작품에 비해 딱딱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도에는 이러한 지리적 사실관계의 확인을 뛰어넘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 서울대학교 규장각 특별연구원

위성사진이나 항공측량 등에 의해 제작된 현대지도와 달리 정확성을 지니지 못했던 과거의 지도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당시인의 인식이 적나라하게 투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지역은 부각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과감하게 생략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인식의 불완전으로 인해 지도가 매우 과장되고 왜곡되어 그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에서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이 어떻게 표현되고 위치되었는가는 서양인의 제주인식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는 동아시아의 지중해라 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로 둘러싸여 있는 해역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고대로부터 이 지역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기도 했던 사실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양의 지도에서는 제주도가 조선의 어떠한 지역보다도 중요하게 수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주도가 서양지도에 수록되는 과정은 지속적인

탐험과 항해로서 획득된 지식에 기반하거나 이전 시기 형성된 관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지도의 계보, 제주도에 대한 지리적 정보의 전달과정, 사회적 배경 등도 아울러 검토했을 때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도를 표기했던 ‘도적섬’, ‘풍마’, ‘켈파르트’, ‘제주’ 등의 지명이 어느 시대 어떤 경로로 서양 지도에 표기될 수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적섬’이라는 지명이 초기의 서양지도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의 반영이라 생각되며, 특별히 제주만을 지칭했던 것이 아니라는 견해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왜구의 출몰과 관련되어 나온 지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티니오의 『중국신지도첩』에서 풍마(Fungma)라는 지명이 표기되었는데 1698년 『대달단지도』를 제작했던 윗센(Witsen, 1641~1717)에 의하면 중국인이 부르던 명칭이라고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지명이 원대에 제주의 별칭으로 ‘豐馬島’라 부른데서 유래된 것

으로 보았는데 중국측 사료에서 한자로 '豊馬島'라고 표기된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도상에 '豊馬島'라는 한자 지명이 표기된 것을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Fungma라는 서양 지도의 표기에 대한 결과론적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즉, 제주도가 원대에 목마장으로 개척되었던 역사적 사실로 인해 Fungma의 한자 지명을 말이 풍부하다는 '豊馬'로 해석하지 않았나 합니다. 어떤 학자는 풍성할 豊자를 바람 風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역시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주도의 지명으로서 서양에 가장 널리 알려졌던 켈파르트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지명의 유래를 배의 이름을 딴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이전의 '가파도'를 음차한 것이라는 설보다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 독일의 저명한 지리학자 라흐텐자흐가 한반도 전역을 답사하여 저술한 『Korea』에서도 1642년 네덜란드의 de Brack이 제주도를 발견하고 'Quelpart'라 명명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켈파르트'는 네덜란드어로 당시 범선의 한 유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지도 제작이 메카였는데, '켈파르트'라는 지명이 이 시기 여기서 제작된 지도에 수록되면서 서구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과거 고지도를 통해 제주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현재적 문제와 결코 분리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실 확인의 차원에서 그친다면 집구석에 私藏된 골동품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보다는 타자의 제주인식을 통해 제주의 위상과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대현 관장님의 발표는 이 분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